

“코로나19 장기화…변화 보다 안정”

윤종규, KB 차기 회장 후보로…3연임 확정
이동걸 KDB산은 회장, 26년 만의 첫 연임
수협·KB국민 은행장도 연임에 무게 실려



2020년 가을, 금융권 최고경영자들의 연임이 이어지고 있다.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되며 사실상 3연임을 확정할 윤종규 KB금융 회장, 연임에 성공한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일찌감치 3연임을 확정지은 박종복 SC제일은행장(왼쪽부터).

사진제공 | KB금융, 동아일보DB

금융권 CEO(최고경영자)들의 연임 바람이 거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 속에 경영진 변화보다 업무 연속성을 통해 안정을 꾀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단기 실적보다 중·장기적 경영 전략을 통한 발전을 노린다는 전락이다.

먼저 윤종규 KB금융 회장이 16일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되며 사실상 3연임을 확정했다. 선우석호 KB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6년 간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성공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수익 다변화 기반을 마련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조직을 3년 간 더 이끌어야 한다는

위원들의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25일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이사회에 회장 후보자로 추천되며 11월 2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임되면 2023년 11월까지 KB금융을 이끌게 된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도 연임에 성공하며 11월 3년간의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KDB산업은행 수장이 연임한 것은 26년 만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KDB

산업은행의 역할 증대 및 아시아나항공 매각 등 산적한 현안이 이 회장 연임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이다. 박종복 SC제일은행장 역시 일찌감치 3연임을 확정짓고 내년 1월 8일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박 행장의 경우 풍부한 은행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체적 조직재편과 안정적 성장 기반을 구축해 실적과 수익성을 개선시킨 게 주요했다는 평가다.

이렇듯 연임이 이어지는 분위기에서 올해 임기만료로 앞둔 은행장들 역시 연임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10월 임기가 끝나는 이동민 Sh수협은행장은 임기 3년간 은행의 체질 개선, 해외진출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1월 임기가 끝나는 허인 K B국민은행장의 경우 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에서 KB국민은행만이 잡음을 일으키지 않은 것이 플러스 요인으로 꼽힌다. 12월 임기 만료되는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사모펀드 사태에 발 빠르게 대처해 올해 연임에 성공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과 한 번 더 호흡을 맞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라이프

스포츠동아 2020년 9월 22일 화요일 15

날씨와 생활

22일(화)

서울	0/20	인천	0/0	수원	0/20
	16 25		17 24		15 25
춘천	0/0	강릉	30/30	청주	0/10
	13 24		14 21		15 24
대전	0/20	전주	0/0	광주	20/0
	15 24		15 24		16 24
대구	20/10	울산	20/30	부산	20/30
	14 23		16 21		17 23
창원	20/20	제주	30/2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16 23		20 23	날씨	최저 최고기온 C

☀ 해돋이 06:20 해질 18:29 🌙 달돋이 11:40 달질 21:51

산 날씨

북한산		12/26	내장산		14/23
설악산		13/21	무등산		14/24
오대산		13/25	주왕산		11/21
속리산		11/23	지리산		15/22
계룡산		13/24	한라산		19/24

바다 날씨

인천제도		17/24	안면도 꽃지		14/24
제주도		15/25	변산반도		14/24
경포대		14/21	거문도		15/23
속초		14/21	해운대		17/23
대천		14/24	제주도		20/23

미세먼지

서울	13	좋음	대전	12	좋음
부산	14	좋음	경기	13	좋음
대구	16	좋음	강원	9	좋음
인천	13	좋음	전북	14	좋음
광주	14	좋음	제주	14	좋음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420호

발행인	이인철	편집인	이성훈	편집국장	연제호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경제산업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안희모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			

9월 22일(화) 음력: 8월 6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청색 길방:동 오늘의 마음:상쾌		소 행운색:흰색 길방:서 오늘의 마음:혼란		호랑이 행운색:적색 길방:남 오늘의 마음:겨우 해결		토끼 행운색:적색 길방:남 오늘의 마음:가시밭길		용 행운색:흰색 길방:서 오늘의 마음:좌충우돌		뱀 행운색:노랑 길방:중앙 오늘의 마음:힘찬 하루
의욕이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일이나 문제 등이 현실로 돌입되는 시기이니 현 상황에서 확장이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하며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용기를 가져라. 최후까지 노력하면 달성된다. 오늘은 용의 날이다. 기복기와 경문이 탁월하여 자신의 재능 부분에서 빛을 발하게 된다.		항상 자신의 주장보다는 주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혜롭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신경이 많이 쓰이는 때이다. 의욕이 저하되는 모습을 타인에게 들릴 수 있으니 국가의 정신이 필요할 때다. 무리하면 스스로 상처이다. 오늘은 관재수를 조심해야 한다. 크건 작건 그 일로 인하여 노심초사하고 어디에 있어도 편함을 얻지 못한다.		의욕이 너무 앞서거나 물질적인 면을 강하게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안정을 찾도록 하라.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인간적 유대관계에 마음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신변에 가까운 일은 성취된다. 오늘은 월살 또는 고초살이라 해서 씨앗이 발아가 되지 않는 날이다. 정신적인 혼마로 인하여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날이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에는 보이지 않는 장애가 많고 고심하게 되며 주위로부터 구설이 뒤따르기도 하니 특히 근신하여야 한다. 매사에 많은 애로가 따르니 성급하게 나서지 말고 돌파구를 찾도록 노력하라. 장래를 봐서 거래에 투자하라. 오늘은 반안일이다. 노력과 정성과 운의 결실을 의미한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운이기도 하다.		별로 진척이 없는 시기이므로 무엇을 이루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를 필요로 한다. 보다 긍정적인 사고로 진취적으로 생각하여 현 위치에서 좀 더 높은 자리로 도약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곧 이 위기는 극복 되겠다. 소극적으로 행동하라. 오늘은 용의 날이다. 흐르던 물이 잠시 간헐한 형상이다. 불이란 항상 흐르는 것이다.		금전적인 이득과 함께 이성이나 귀인의 도움이 따른다. 자신의 명예에 관한 행동이나 금전관계도 원활하나 과감한 행동이나 처세는 심사숙고 해야 한다. 서류상의 문제는 정확한 확인 및 보관이 필요하다. 수입이 늘어난다. 오늘은 천살일이다. 천살은 모든 일이 형성되기 이전의 단계이다. 혼돈의 시기이다. 전환기와 같다.	
	말 행운색:노랑 길방:중앙 오늘의 마음:힘들다		양 행운색:흰색 길방:서 오늘의 마음:소망 많다		원숭이 행운색:노랑 길방:중앙 오늘의 마음:허무한 마음		닭 행운색:노랑 길방:중앙 오늘의 마음:차일피일		개 행운색:흰색 길방:서 오늘의 마음:갈등		돼지 행운색:청색 길방:동 오늘의 마음:외롭다
자칫 인간관계에서의 트러블로 인해 곤고한 지경에 놓이게 되며 그로인한 심리적인 갈등과 마찰로 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한동안의 안정으로 다소 여유를 얻으며 생각지 않은 만남이 연출된다. 지출이 많을 때이다. 자제하라. 오늘은 월살이다. 어두운 밤길에 달빛이 나타난 격이다. 금전의 융통이나 어려움의 해결은 용띠에게 부탁하라.		지금까지 쌓아올린 공이 인정을 받으며 문서적인 측면의 일에 발전의 계기가 조성되어 인사이동, 확장, 변경 등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 자격증의 취득에 있어서도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는다.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관망하라. 오늘은 반안일이다. 반안은 말 안장을 뜻한다. 진급이나 높은 자리를 의미하며 그러한 것을 바라는 것이다.		자신의 콤플렉스에 빠지기 쉬우며 능력의 한계로 인한 피로감이 쌓이기 쉬울 때이다. 그러나 점차 지금까지의 상태에서 벗어나 활동의 범위를 넓혀감에 따라 뜻이 관철되는 계기가 조성된다. 오늘은 화개이다. 한 분야에 몰입하여 타의 시선이나 관습에 개의치 않는 것이 특징이다. 좋은 마무리의 날이다.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자문이나 조언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개입을 얹는 편이 좋으며 자신의 건강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 시기를 기다리며 심신을 안정시켜라. 손을 안대도 될 것을 자꾸 건드린다. 새로운 것에 대한 향수가 생겨난다. 새로운 변화를 추구한다.		신용과 책임있는 자세로 과감하게 선두에서 확고한 자기 노력이 뜻을 실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마음속에 갈등이나 번민이 따르니 변화나 변동상황에서 자제하여 무리한 인간관계를 유지함이 필요하다. 머리를 쓰라. 이룬다. 오늘은 월살과 화개살이 부딪히는 날이다. 관재, 송사 조심해야한다. 또한 비밀노출이고 싸움으로도 해석된다.		현재의 상태에서 더 큰 변혁의 일면을 맞게 된다. 뜻하지 않은 일의 발생으로 다소 당황하나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그 대가를 기대 이상으로 찾을 수 있다. 기분에 치우치지 말고 침착하게 밀고 나아가라. 욕심부리지 말라. 오늘은 원진살과 귀문관살을 만났다. 세상을 원망하고 주변인을 원망하며 신경이 예민해지는 날이다.	